

“어린 나무, 뿌리 잘 내려야 하니 기초 잘 잡아 줘야”

시인 이해인 수녀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따뜻하고 정감어린 말씀으로 세상과 함께 했던 법정 스님이 어린왕자 결으로 가진 지 어언 두 해. 해방동이 이해인 수녀가 곱다라니 수놓은 시 '나를 키우는 말'을 읊조리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으셨다"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깊은 고요 끝에 나온 첫 말씀에는, 따뜻한 말로 서로 보듬어 안아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환하게 수놓으라는 큰 뜻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날마다 고운 말을 쓰며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이 세상. 험한 말을 하며 헛되이 보낸 세월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된다.

어느 해 도예가 김기철 선생 전시회 때, 법정 스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들은 이해인 수녀는 성당 다니

천주교신자는 법정 스님 사인을 붙자는 이해인 수녀한테 사인을 "맑고 투명한 수녀님 언어에 소리 없이 박수를 보냅니다"

는 엄마들과 전시회장엘 갔다. 그곳에서 보기 드문 신선한 풍경이 벌어졌다. 성당 다니는 엄마들은 스님한테 사인해 달라고 하고, 붙자들은 이해인 수녀한테 사인을 부탁하는. 율해는 종선과 대선이 있는 해로 말을 많이 할 선량들에게 일러주고 싶다. 법정 스님 수필집 한 권, 이해인 수녀 시집 한 권은 꼭 읽고 난 뒤에 출사표를 던지라고.

"76년 2월에 제 첫 시집 <민들레 영토>가 나왔을 무렵, 법정 스님은 이미 <영혼의 모습>과 <무소유>로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계시 때였어요. 법정 스님 글에 매료된 동무가 불일암 주소를 적어 보내면서 <민들레 영토>를 한 볼 스님 암자에 달려 보내지 않겠느냐고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스님께 편지를 드리려는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동무 얘기를 듣고 불일암으로 편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스님이 생각보다 빨리 답장을 주셨어요. 다정하게, 저는 스님이 쓰신 글 가운데 <영혼의 모습>에 있는 '어린왕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스님이 어린왕자 존수를 이야기 하면서, 시는 누워서 읽



어야 제 맛이라며 격려 말씀을 해주셨어요."

修女님

보내주신 사연과 詩集 감사히 받았습니. 어린왕자 존수로 따진다면 우리는 친구입니다. 밤하늘별을 바라볼 줄 아는. 누워서 <민들레 영토>를 몇 편 읽었어요. 詩集을 뺏긴 자세로 읽을 수가 없었니까요. 맑고 투명한 修女님 言語에 소리 없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의 약속과 함께 시와 더불어 살겠다는 결의'에 축복이 있기를 믿습니다. 나는 큰절에서 한 오리 떨어진 암자에서 혼자 삽니다. 밭도 짓고 나무도 하고 즐기도 하면서 비교적 게으르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빠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는 무척 미안하지만 얼마동안은 이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요즘 내 암자 뜰에는 해질 녘이면 달맞이꽃 잔치입니다. 저녁 시간은 그 애들이 문 여는 것을 지켜보면서 消日합니다...

두 분 현존대조는 법정 스님이 돈던 스님과 함께 이해인 수녀가 사는 올리베타도 성 베네딕도 수녀원을 찾아 이루어졌다. "스님께 다녀오셨다 드렸더니 '증거인멸 합시다.' 그러면서 드시네요. 증거인멸이란 말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 스님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를 때라 피하고 싶었나 봐요. 타종교 기

허리는 꽃꽂이 세우고 목상 하라 서로에게 이롭지 않은 말은 '꼴꺾' 수도자 말 많으면 속이 빈 증거 풍년들어 모두 잘살길 기도합니다

관에 가련 숨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에 오신 김에 예비수녀들에게 한 말씀해주시라고 부탁드렸어요." 법정 스님은 수녀님들이 아침 목상을 할 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모두 고개를 앞으로 수그리느냐 건강을 생각해 허리는 꽃꽂이 세우고 목상을 하라면서, 절제하는 삶과 수도생활 초심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일러주었다. "스님과 광안리 바다를 거닐었어요. 그때는 바다가 한적했거든요. 스님은 '산만 보고 살면 국이 없는 밥을 먹는 것 같은데, 바다를 보면 마치 국이 있는 밥을 먹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수녀원 아침 기도에 동참한 법정 스님은 '여러분이 빛을 쬐서는 안 되겠지만 사랑해야 할 빛만은 남아있다'는 바오로 성인이 너무 좋다고 베풀어 쓰기도 했다. 스님은 이해인 수녀에게 여행용 성물(심자가)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바다 생각이 난다면서 천주교 분도출판사 시청각실에서 나온 닐 다이아몬드가 작곡한 '갈매기의 꿈'이란 영화 주제음악 테이프를 구해달라고도 했다. "산에서 우표 구하기

가 어려우니까 예쁜 우표가 새로 나오면 구해서 보내드리면 아주 좋아하셨어요. 또 스님 부탁으로 <이름 없는 순례자>란 책을 구해서 보내드렸더니, 스님이 '내 지령에 즉각 응답해주신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란 편지를 주셨어요. 스님하고 서른 해 남짓 우정을 쌓았다 해도 만나 뵈는 것은 열 번이나 될까요? 가끔 편지나 주고받는 인연이었어요."

이해인 수녀가 지원자 담당을 할 때 보살피는 예비수녀들이 법정 스님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이해인 수녀는 스님한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쓰라고 해서 스님에게 보냈다. "스님이 아홉 자매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자상하게 공동담당을 보내셨어요."

아홉 자매님 고마운 편지에 대한 회신을 뒤늦게 씁니다. 말해 베로니카: 어제 큰절에서 수련하는 학생들이 40여 명 우리 佛日에 올라왔기로, 一列 횡대로 세워 놓고 거꾸로 보기를 시켰습니다. 그 모습 또한 불만해요. 방문객들에게 노래를 시키는 게 요즘 내 취미입니다... 여섯 째 류 클라리: 요즘은 소위 日照量이 적어 잘 마르지 않은 땀래를 말려야 합니다. 땀 흘리지 않더라도 內衣는 자주 갈아입는 게 내 성미입니다. 베풀어 높으면 안 좋대요. 高枕 短命이라... 아가다: 그래요. 진정한 친구는 말이 소용없지요. 수도자는 말을 할 때 세 번씩 생각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나한테도 이롭고 듣는 쪽에도 이로운 말일까? 서로가 이로운 말이라면 하고, 이롭지 않은 말이라면 삼켜 버려야 합니다. 꼴꺾, 수도자가 말이 많은 것은 속이 그만큼 비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아셀라: 올 여름 이 지루한 장마는, 비를 좋아하는 아셀라를 위해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농사가 안 되어 큰일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흉년이 들면 어쩌지요? 풍년이 들어 모두가 넉넉하게 살아지다 하고 기도를 드려야겠습니... 큰 언니 하야친타: 성급해서 하루 전날 왔다고요? 그래요. 집을 떠나려고 결심이 되면, 누가 어디서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조금 해지는 게 모든 出家 수도자 심경일 것입니다. 마야 가린 통에 바이올렛을 심듯이, 정성을 다해 수도생활에 한결같이 정진한다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8월 말쯤 우리는 현존대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1980. 8. 15 佛日庵에서 합장

"스님은 제게 새 이름 가운데 빠꾸기 이름 밖에 아는 게 뭐가 있느냐면서 놀리기도 하셨어요. 또 대학 원엘 갔을 때 비교종교학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다는지, 중요한 터닝 포인트 때마다 조언을 해주셨어요. 지원자 담당을 할 때는 어린 나무는 뿌리를 잘 내려야 되니까 기초를 잘 잡아 줘야한다고 하시고, 제게 야단도 치셨어요. 글씨 못 쓴다고. 편지를 두세 번 되풀이해서 읽어 문맥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고. 제게 가끔 후원금을 홍콩 돈으로 보내는 엄마가 있었는데, 보내는 돈을 착착 접어가지고 스님 뵈면

화제의 신간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타블로이드판 257×364, 536쪽
정가 380,000원

3천권 돌파 1주년 기념

50% 파격세일

정가 380,000원

180,000원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듣지 않습니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악식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으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 장난인지 **상대방 마음 꿰뚫어 보는 법**
집안동토탈 알아내는 법
산소탈 원인 알아내는 법

귀신뱀은 래정비법으로 복잡하지 않고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속속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정가(권당) 120,000원

권당 60,000원

① 신국판/양장본/567쪽 ② 신국판/양장본/712쪽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3813-4443

입금계좌(예금주: 임현주) : **농협 023-02-500940**



송광사 불일암을 방문한 이해인 수녀 일행이 법정 스님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맑고 향기롭게 후원금이라고 드렸어요. 그러면 스님은 '또 러브레터 주는 거야?' 말씀하곤 하셨어요. 제가 환속한 친구 때문에 힘들어하면, 달래주는 편지를 주시고, 한번은 유명세 때문에 하도 힘들어가지고 스님께 여쭙려고 광주에서 베토벤음악감상실을 하는 정옥 보살님이랑 불일암을 찾았어요. 그 때 스님이 발에 가셔서 손수 농사지은 케일을 따다가 같이 주셨어요. 너무 써서 얼굴을 찡그렸더니 대접을 하면 웃으면서 마셔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독야마시는 표정을 하고 있다고...'

한번은 기자들이 법정 스님 마음을 묶어둔 난초이 야기를 하면서, 수녀님 마음을 잡아둔 난초는 뭐냐고 물었다. 법정 스님이 야기된 난초를 바람 쏘이려고 바깥에 놔두고 깎깎 잇고 나들이 갔다가 뒤늦게 그 일을 떠올리고 허겁지겁 돌아와 보니 뜨거운 햇살을 받은 난초 잎이 축 늘어져 있더라는 이야기다. 그 뒤 스님은 가까운 지인에게 난초를 들려 보냈다. 이해인 수녀는 돈이나 모든 살림을 공동체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조개껍질 몇 개와 솔방울 몇 이 붙들어 댈까. 다른 건 없다고 답을 했었다. 말씀 끝에 인세 쓰임새가 궁금했다. 이때 전 법정 스님이 원전에 드셨을 때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스님 인세는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이었기에. "저는 계좌번호는 영부사처럼 달달 외우지만 만들 때때고는 통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한 해를 마감할 때 그동안 들어온 인세가 얼마나 되는지 경리과에 물어 달라고 부탁해요. 출판사에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하나니까요. 저도 사람이기에 궁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얼마가 들어왔는지 보게 되면 다른 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옛날엔 이만큼 벌었는데는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해서 보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곳에 들어올 때 청빈서원을 하고 모두 공동소유기 때문에, 제게 도움을 청하는 이웃이 있으면 수녀원에다 '좀 도와주세요' 올려서 수녀원 이름으로 돕지. 제 이름으로 하는 일은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이예요." 무소유는 철저히 공동소유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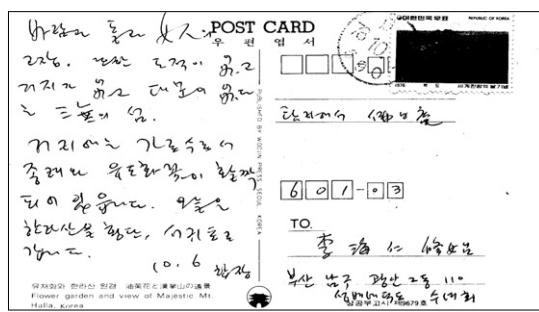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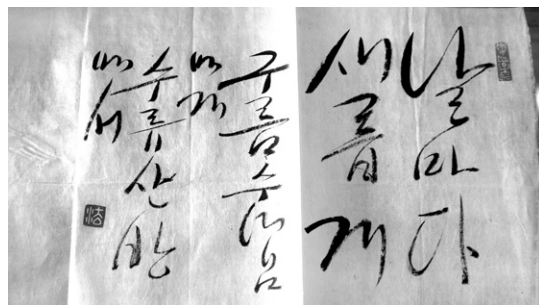
몇 시간을 이야기 나누다보니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는 분을 만나는 게 맞아?' 싶게 이해인 수녀는 한 마디로 '씩씩 명랑' 모뎀. 까맣다 뭐가? '제가 밖에 살았으면 한 가정을 일궈냈지. 그런데 수도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렸으면 갖지 못했을 많은

암투병 이해인 수녀 '명랑 씩씩' "내 아픔이 이웃에게 위안 된다니 기쁜 일이고 선물입니다" 방문객 맞기 '찬미 영광 드리는 일'

벗고 이웃을 다 친척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게다가 병을 앓다보니깐 한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한데. '어? 내가 살아서 움직이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떠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용서 못 할 일이 없고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놀랐어요. 아픔을 요리하고 받아들이는 제 방법에. 울고 짜고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외려 기쁜 거야. 이런 저를 보면서 나 참 괜찮네. 아픔 가운데 전주를 발견한 이 기쁨,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몰랐을..."

이해인 수녀를 따르는 암 환자들은 "수녀님 같은 분도 안에 걸리니까 내가 안에 걸린 게 죄는 아니다." 또는 "수술을 앞두고 걱정이 되는 데 수녀님들 생각 하면서 힘을 얻는다. 나도 수녀님처럼 암하고 동무가 되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면서 이해인 수녀도 안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편지를 보낸다. "내 아픔조차도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야? 선물이네. 그러다 보니 푸념하고 한탄할 시간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픈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낀다니까 괜히 병글병글 웃게 돼요. 아픈 사람이 전보다 더 밝고들 하죠." 그렇기에 이해인 수녀가 머물면서 시를 쓰고 글을 다듬는 글터이자 작은 문학관인 서재는 암환자들에게나 그 밖에 다른 이들에게 위안과 기쁨을 주는 '마법의 성'이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고 '명랑 씩씩' 한 꿈이 쉼하는 곳이기도.

"암 환자들이 대개 침울해요. 언제 또 병이 도질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수녀님에도 암환자가 늘어나니까 안 되겠네 싶어서 '아픈 사람 다 모이' 게 해서, 아픔을 상징하는 가시달린 '쫄레꽃'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암 환자 수녀님들 모이세요.' 하기보다 '쫄레꽃들 모이세요.' 하면



법정 스님이 이해인 수녀에게 보낸 글과 엽서

듣기도 좋잖아요. 언론에 암 정보가 나오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가끔 뭐 먹고 싶냐고 물어서 나눠먹기도 하고, 얼떨결에 제가 '쫄레꽃' 대표이사가 됐어요. 왕언니."

이해인 수녀는 새로 암환자가 생기면 러브레터를 써서 보내고, 명랑 투병을 한다. 다 나은 사람은 함박꽃이라고 부르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강퇴시킨다. 지난해, 간암으로 투병하던 쫄레꽃 한 송이가 떨어졌다. 꼬박 한 해를 앓다가 돌아갔는데, 발병하자마자 '수녀님, 저도 쫄레꽃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랬다. "그렇게 쫄레꽃 학교에서 졸업한 그 수녀님은 비록 암에 걸려서 내일 당장 병원에 실려 가더라도 아직은 웃을 수 있으니 고맙다며 즐겁고 기뻐했어요. 처음엔 재미삼아 쫄레꽃 모임을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기억력이 좀 좋아서 누가 지나가는 말로 뭐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 기억해줬다가 '수녀님, 이거 갖고 싶다 그랬지?' 하고 주면 '아니, 수녀님한테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서 눈이 동그래져요. '바람같이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쥐요. 큰일은 못해도 매개 노릇을 잘해요. 기쁨 발견 연구회." 그야말로 타고난 사랑을 주는 메신저. 기쁨 발견 연구회장이자.

"예기치 않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사람도 그전 같으면 냉정하게 맞았을 텐데, 요새는 '이게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는데' 싶어서 선뜻 받아들여요.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란 시에서 '사람이 오는 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한 사람 일생이 온다'고 했듯이, 그 사람 일생이 내게 오는 건 이 순간 뿐인데 놓치고 후회 말고 잘해드리자.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어느 때는 몸이 고달프기도 하지만, 테레사 수녀님말씀처럼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지 뭐' 이러면서 이 일이 성당에서 울리는 기도 못지 않게, 주님께 찬미 영광 드리는 일이다. 사람들이 날 만나면 기쁘다니까 보여줄 수 있을 때 가까이 보여드리지 하는 마음이에요." 이해인 수녀 기도는 날줄과 씨줄이 어우러지는 살갑고 도타운 정情이자 그리움이고 애뜻함이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고영배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복수불반분

군자가 항상 명심해야 할 아홉가지(九思)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색사온(色思溫)이라고 한다. 색사온은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안색이 온화했는가를 반성해 봐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 감정을 표출할 뿐 상대에 대한 배려는 아랑곳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잠깐 그러한 행위를 정지해 보면 상대와는 무관한 일인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고 만다.

사리(事理)의 옳고 그름이나 이르고 저러함의 분간을 말할 때 경위(溥滯)라는 말을 쓴다. 이 경위는 위수와 경수를 지칭한 말이다. 경수(溥水)의 강물은 흐리고 위수(滯水)의 강물은 맑아서 맑고 탁함의 구별이 분명하다는데서 나온 말이다. 저 유명한 강태공(姜太公)이 꿈은 낚시질로 세월을 낚은 것도 무대가 위수였다. 그리하여 후일 그는 주(周)나라 문왕에게 발탁되어 제나라를 세우게 된다.

임신하지 못한 남편을 타박한 나머지 친정으로 달아난 마(馬)씨 아내는 남편이 출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 재결합하자고 간청했다. 그러자 강태공은 치미는 감정을 억제하며 낮은 목소리로 동이에 물을 길어오라고 했다. 부인은 시키는 대로 할 밖에 도리가 없었다. 동이에 가득 물을 길어오니 이제 그 물을 마당에 부어 보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나니 이제 얼질러진 물을 담아보라고 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때 강태공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즉 얼질러진 물은 다시 동이에 담을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범어로 인간을 마누사(manushya)라고도 하고 돌라밤이라고도 한다. 동사 Bhrj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고통을 참다', '포함하다'는 뜻이다. 여기서 돌라밤은 '언기 힘든 기회'라는 뜻이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본다. 한 생명체가 인간으로 환생하려면 8400만 번의 윤회를 거듭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에 인생난득(人生難得)이라고 표현했나 보다. 인간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숫자로 살펴보면, 이 소중한 몸으로 좋은 생각을 하면 천상행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나라행이 하게 되는 의업(德業)의 행위야말로 선불리 이리공저리공 생각의 실타래를 늘어놓을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짓는 행위는 형체가 없으므로 고삿 풀린 말마냥 동서남북으로 분주히 날뛰기 일쑤다. 그러다보면 어렵게 얻은 사람 몸도 지탱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마음을 심지(心地)라고도 한다. 마음이 선악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

지가 오곡을 생육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하는 말이다. 또한 선종에서는 달마 대사로부터 전해진 마음을 말한다. 혹은 심성(心性)이라고도 한다.

능화자(能化者)와 소화자(所化者)라는 말이 있다. 타인을 교화하는 사람을 능화자라고 하며 교화 받는 사람이란 뜻으로 제자를 소화자라고 한다. 누구나 능화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지만 교화 받는 시절을 뛰어 넘어 일순간에 능화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필연적으로 소화자는 능화자의 검증을 거쳤을 때만이 미숙의 베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베일을 벗어던지는 일은 순간이다. 눈썹을 치켜뜨거나 눈동자를 굴러 보이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 속에서 이루어진다.

목수는 열심히 대패질을 하고 욱시 목재가

'경위'의 경수는 맑고 위수는 흐려 맑고 탁함 구분해서 사리분간 위수에서 세월 낚다 출세한 강태공 "얼질러진 물 다시 담을 수 없다"

원하는 만큼 곱게 다듬어졌는지 확인을 한다. 작은 너스레미가 발견되면 곧 그 곳에 대패가 오고 간다. 등산객들도 평지만 만나면 것이 아니니 산행을 하다보면 너스레를 만나기 일쑤다. 너스레는 험한 바위나 돌 따위가 삐죽삐죽 내밀어 있는 것이다. 살도 일정한 여정이다. 그 여정 속에는 산행길에서와 같이 너스레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너스레는 시련이라고 힘들어 해서 안된다. 너스레를 지나면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너스레를 극복하면 인욕의 묘미도 터득하게 된다.

선수행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가히 선지식이라 칭할 수 없다. 형상 없는 마음 공부에서도 검증이란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림자 없는 형상을 밝혀내고 원근(遠近)을 초월하며 침묵 속에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수행자야말로 실로 인권의 사표가 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 둥근 두리반이 있으면 좋겠다. 둥근 소반은 어떻게 놓아도 둥글기만 하다. 그러나 보니 차별을 짓지 않고 고하를 만들지도 않으니 상대와 다를 리 만무하다.

우주는 크나큰 두리반이다. 우주가 선악미추, 고저장단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힘은 두리반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창사 19주년 기념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성지순례

미안마

3월 출발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 1,290,000
- 양곤 | 바간 | 헤호 6일 -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 요금문의

* 특급(세도나 또는 동급)호텔, 업그레이드 식사, 비자 포함
* 전 일정 특급호텔, 가이드 기사 팀, 호스카 포함 / 유류할증료 불포함

인도 완벽 8대성지 9일 / 10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전통불교 성지순례 6일 (요금문의)
장사 | 장가계 | 원가계 | 천문산 5~6일 (요금문의)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 02)365-7747

사찰 연등 및 전선 (범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고추추 12B 인자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비품 전선 10년 5년 불해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사람, 범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